‘원주민 희생’ 기린 북미순례 대장정

美불교계 메사추세츠 순례… 2020년까지 유럽서도

박정현 객원기자

1492년 스페인의 크리스토퍼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후부터 약 200년간 유럽인들의 이주가 시작됐다. 이른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화에 나선 것. 이 과정에서 약 150만 명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기며 죽어갔다.

이 같은 원주민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미국 불교계가 메사추세츠주(州)에서 평화 순례길에 나섰다.

불교 매체 글로벌부디스트도어(global buddhistdoor)는 6월 14일(현지시간) “메사추세츠 불교 지도자들과 평화 활동가들이 5월 31일~6월 22일 주 전역을 순례했다”며 “유럽의 식민지화에 따른 미국 원주민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함”이라고 보도했다.

1917년 설립된 일본불교 종파인 니포잔 묘호지(日本山 妙法寺)가 주관한 이번 순례단은 메인(Maine) · 코네티컷(Connecticut) ·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등 1916~1919년 원주민들의 ‘위대한 희생(The Great Dying)’이 있던 지역을 차례로 방문했다. 순례를 하며 식민지화의 암울한 역사를 배우는 시간도 보냈다.

한 순례단원은 “함께 걷는 동안 아픈 역사를 직면하고 성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역사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왐파노아그(Wampanoag) 원주민 부족인 또 다른 순례단원은 “불교계의 이 같은 활동은 많은 원주민들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우리는 순례

日불교 ‘니포잔 묘호지’ 주관
‘위대한 희생’ 지역 차례 방문
사원 · 불교커뮤니티 등도 설립
“원주민들에게도 긍정적 영향”

하는 동안 호흡 명상을 하고, 신성한 치유의 시간을 갖는다. (상처받은) 마음까지 치유 되는 것”이라고 웃어보였다.

이에 더해 니포잔 묘호지는 모히칸(Mohican) 원주민 부족 조상들의 땅에 사원, 불교 커뮤니티 센터, 평화탑 등도 세웠다. 니포잔 묘호지 관계자 린다 에드워즈(Lynda Edwards)는 이달 초 베삭 행사에서 “한 원주민 운동가가 원주민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평화탑 조성을 위해 1984년 우리에게 해당 부지를 주었다”고 설명했다.



메사추세츠 불교 지도자들과 평화 활동가들이 5월 31일~6월 22일 주 전역을 순례했다.
사진출처=글로벌부디스트도어

니포잔 묘호지는 1985년 해당 탑을 완공해 뉴잉글랜드평화탑(New England Peace Pagoda)이라고 명명했다. 해당 탑은 매일 일출부터 일몰 때까지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 개방된다. 2011년 문을 연 인근 사원에서는 매일 불교 기도 및 의식, 종교 교류 행사를 비롯해 원주민을 위한 기도 행사를 열기도 한다. 현재 니포잔 묘호지는 미국의 메사추세츠 · 샌프란시스코 · 뉴욕과 캐나다 매니토바 등에 이어 테네시(Tennessee)주에 6번째 평화탑을 조성 중이다. 한편 니포잔 묘호지는 원주민 희생을 기리기 위한 순례 행사를 북미 · 유럽 등에서 2020년까지 진행한다.

페쿼-왐파노아그(Pequot-Wampanoag) 원주민 부족의 원로이자 역사가인 톨 오크(Tall Oak)에 따르면 “대서양을 중심으로 양 대륙에서 계획된 2020년 기념행사는 분명히 ‘자축’의 자리가 아닐 것이다. 다만 원주민들의 땅에 이주한 사회의 깊은 자기성찰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할 중요한 가르침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고 부연했다.

평화의 울림 30년, 이대로 멈추나

日 오츠시, 열사병 방지 이유로 평화타종 중단

시장명의 공문 불교회에 발송
시 불교회 “독자적 행사 추진”

2차 대전이후, 다시는 평화를 잊지 말자는 활동이 종교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 30년째 봉행해오던 ‘평화의 타종식’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돌연 중지됐다. 이 황당한 뉴스를 6월 15일 일본의 ‘츄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간사이 지방의 도시 오츠(大津)시는 지난 1987년 ‘항구평화도시선언’을 시의회가 채택했다. 이를 계기로 1989년부터 시내에 소재한 약 260여개 사찰에서, 매년 종전기념일인 8월 15일 정오에 맞춰 일제히 평화의 타종식을 봉행해왔다. 타종식을 봉행하는 사찰들을 번갈아가며 매년 시가 주최하는 기념식을 함께 개최했다.

지난해의 타종식은 천년고찰로 우명한 쇼겐지(生源寺)에서 기념식이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무더위경보로 개최 전날 급하게 취소됐다. 그 후 가을 무렵 시 내부 회의에서 “계속되는 무더위경보로 열사병 환자가 생길 위험이 있으니 2019년부터는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 오츠시 불교회에 지난 1월에 통지했다. 이후 시장명의의 공문이 협회에 발송됐다. 시에서는 타종식을 대신한 평화사업으로 전쟁경험자의 강연회 등을 가을에 계획하고 있다.


2017년 봉행된 평화의 타종식에서 불교계 대표와 오츠시장이 함께 타종하고 있다.
사진출처=츄니치 신문

불교회 측은 “중지결정이 일방적이다”고 항의, 5월에 총회를 열어 오츠시 불교회 독자적으로 평화의 타종식을 계속해 나갈 것을 결정했다. 또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불교회 명의로 시에 제출했다.

불교회장 마에자카 료켄 스님은 “기념식과 타종식은 평화를 기원하는 중요한 행사다. 전체 행사는 30분도 걸리지 않는다”며 시의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스님은 “정말 열사병이 우려된다면, 기념식의 시간을 옮기는 등의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며 일방적으로 시가 타종식을 중지한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국가 M/V에 불교 장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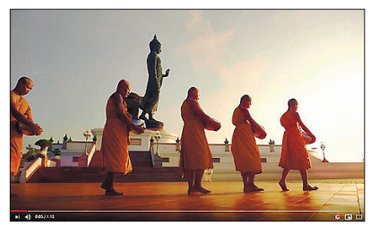
“승려 모습 보이지 않는다” 불교계 항의 수용

태국 정부가 국가(國歌) 뮤직비디오를 새로 제작해 보급했다. “국가의 상징인 불교와 승려의 모습이 빠졌다”는 불교계 항의를 전격 수용한 것이다.

6월 18일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태국 총리실은 지난달 공개된 기존 국가 뮤직비디오에 불상, 탁발하는 승려들의 모습을 추가했다. “가장 첫 장면에 배치해 불교계의 항의 소지를 아예 없었다”고 언론들은 설명했다. 또 마지막 장면에는 지난달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의 대관식 모습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달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자 태국 불교계가 단체로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태국 불교계는 “태국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국가 · 종교 · 왕실의 모습이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기존 뮤직비디오가 인구의 약 5%에 미치는 무슬림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여러 종교인이 함께 모여 국가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태국 ‘국교’와 다름없는 불교


태국 정부가 불교계 항의를 수용해 새로 제작한 뮤직비디오 첫 장면.
사진출처=유튜브 영상

승려의 모습이 없다. 대신 이슬람교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 많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뮤직비디오 제작자의 종교가 무엇인지 조사하라는 요구까지 했다. 이 같은 항의가 제기되자마자 태국 총리실은 불교 장면의 추가 촬영을 즉시 실시했다. 당시 총리실은 “불교계 항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국왕이 모든 종교의 융합과 태국 사회의 평화를 위해 제작한 뮤직비디오다. 이로 인한 종교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티베트 스님 ‘대영제국메달’ 받는다


불교포교를 공로로 대영제국메달을 수훈하는 게쎄 따시체링 스님.
사진출처=쎄라메 사원 공식 페이스북

영국왕실과 정부가 영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수여하는 ‘대영제국메달(British Empire Medal)’을 티베트 스님이 받게 됐다. 메달 수여 사유가 불교 포교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 깊다. 6월 13일 이 놀라운 소식을 ‘티베탄 저널’, ‘파율’ 등의 외신이 대서특필했다.

대영제국메달은 1917년 영국정부가 제정한 대영제국훈장의 일부로, 영국사회에 공훈을 세운 민간과 군인에게 수여되는 공로훈장이다. 영국정부는 지난 7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일을 맞이해 수여되는 대영제국메달 수훈자 중에 망명티베트인 승려인 게 따시체링(Geshe Tashi Tsering)이 있다고 발표했다.

영국정부는 따시 스님이 “영국 내에 불교철학과 문화를 전파한 공로를 인정해 민간부문에서 메달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이 메달은 영국왕실이 인정하는 훈장으로, 스님은 공식 서명에 수훈자를 뜻하는 ‘BEM’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또한 영국사회에서 영예로운 인사로 대우받게 된다.

따시 스님은 1958년 티베트 푸랑

망명티베트 승려 따시 스님
불교 포교활동 공로 인정돼
1994년부터 런던에서 활동
잠양 불교센터 운영에 박차
강의 내용 6권 책으로 출간

(Purang)에서 태어나 이듬해 가족과 함께 인도로 망명, 13세에 남인도의 총림인 쎄라메 사원으로 출가했다. 1990년 티베트불교의 최고학위인 게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부터 런던의 잠양 불교센터(Jamyang Buddhist Center)에 상주하며 불교를 가르쳤다.

영국에서 스님은 불교사상의 기초에 대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강의 내용을 6권의 시리즈로 출간했다. 또 해당내용을 온라인 강좌로 만들어 배포하는 등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 불교를 포교하는데 노력해왔다. 한편 서양의 현대교육에도 관심을 두고, 2017년엔 런던대학에서 ‘마음챙김과 사회운동’이라는 주제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러한 열성적인 포교활동과 학문적 성취를 인정, 달라이라마는 지난해 3월 따시 스님을 출가본사인 쎄라메 사원의 91대 방장으로 임명했다.

쎄라메 사원 측은 14일 공식성명을 통해 “방장이신 게 따시체링 스님이 불교를 포교한 공로로 대영제국메달을 받을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를 통해 더욱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홍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